

Issue

Brief

금융기관 금리구성요소별 규제 대응방안

삼일회계법인 금융본부 · January 2025



삼일회계법인



Contents

- 01 최근 금리체계 동향 및 감독원 규제 방향성
- 04 금리체계 대응방안
- 09 맺음말



최근 금리체계 동향 및 감독원 규제 방향성

금리체계란?

대출금리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을 실행할 때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하는 이자를 대출원금 나눈 값이며, 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업, 가계 등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은행, 여신금융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모범기준(표1) 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표1. 금융 업종별 대출금리 모범기준 현황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적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 (22.10.18)
여신금융협회	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 (21.12.3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기준 (24.03.14)
생명보험협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적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 (24.03.27)
손해보험협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적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 (24.03.29)
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 (18.07.20)

감독기관 규제 방향성

대출금리체계는 자율규제 성격으로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적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리인상으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차 확대로 인한 이익추구, 가산금리 산정방식의 비합리성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최근 은행권 금리 산출체계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2. 감독기관 규제 방향성

<p>가산금리산정합리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항목별 산정 방법의 합리성, 근거에 대한 엄격한 요구 • 금리항목별 산출근거 및 합리성에 대한 설명 요구 • 종합검사 및 부정기적 검사 시 대출금리는 필수적 조사항목
<p>소비자 보호 정보제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의무화 •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규정 •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전결금리) 별도 공시 의무화
<p>대출금리체계내부통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정보에 근거한 대출금리 산정 • 시스템 대출금리 변경 시 내부승인절차 준수 의무화 • 금리산정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은행권 대출금리 규제 주요 이슈

최근 감독기관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TF’를 발족하였고, 실 조달원가에 근거한 리스크프리미엄 산정, 기대이익률 합리성 제고, 업무원가 차등화 등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은 은행채 금리에 기반하여 리스크프리미엄을 산출하였으나, 감독기관에서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자금을 포함한 실 조달원가를 기반으로 리스크프리미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3. 은행권 금리구성요소별 감독원검사 지적사항

리스크프리미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금리 산정 시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자금을 반영 ➔ 음(-)의 리스크프리미엄 반영 • 비합리적인 비용항목 포함 금지
기대이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경영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대이익률 산정 시 직전년도 우대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반영
업무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종류, 채널, 기간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특히, 채널(대면·비대면) 원가 합리적 배분 필요
법적비용(출연료, 교육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

합리적 논리를 통한 감독기관 대응 필요

감독기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되 은행의 실제 자금흐름, 경영계획 등 개별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리구성요소별 산출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은행이 선택한 금리구성요소별 산출방식에 대한 근거 및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하여 감독기관의 검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요구됩니다.

금리 구성요소별 규제 대응방안

리스크프리미엄 - 합리적 실조달원가 산출

감독기관은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TF (이하 ‘감독기관 TFT)’를 통해 실 조달원가에 기반한 리스크프리미엄을 산출하도록 각 은행권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신 잔액 코픽스 산출방식에 따라 결제성자금비중 등을 산출하되, 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 적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 리스크프리미엄 (예시)산출방식 검토

① 결제성예금 비중 산정

감독기관 TFT 제시 방식은 직전월 여신잔액 중 신잔액 COFIX 방식에 따라 저축성예금, 은행채 등을 우선 차감하고 부족분을 결제성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가정하여 전체 여신잔액 중 결제성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을 산출합니다.

표4.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 및 잔액·금리 산출 기준

일반자금		결제성자금	
Code	계정과목	Code	계정과목
LA2000K	저축성예금	LA10000	요구불예금
LA20100	정기예금	LA10100K	당좌예금
LA20200	정기적금	LA10200K	가계당좌예금
LA20300	목돈마련저축	LA10300K	보통예금
LA2040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LA10400K	별단예금
⋮		⋮	

출처 : 신잔액 COFIX 모범규준-별표1

② 만기별 금리 산출방식

감독기관 TFT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취급 코픽스 방식에 따라 직전월 만기별 일반자금(1년 초과: 은행채, 1년 이하 저축성예금 등 실제 수신금리) 금리와 결제성예금 금리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표5. 리스크프리미엄 산출을 위한 실 조달금리 산출식(안)

1년 초과	만기별 저축성예금 등 수신금리 $\times (1 - w) +$ 결제성예금 금리 $\times w$
1년 이하	만기별 은행채 금리 $\times (1 - w) +$ 결제성예금 금리 $\times w$

*w = 결제성예금비중

은행의 실제 조달자금에 근거한 합리적 산출방법론 제안

은행이 보유한 여신·수신 및 은행채의 성격 및 조달·운용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을 분석함으로써 은행에 최적화된 리스크프리미엄 산출 방법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6. 실제 조달금리 산출과정

① 결제성 자금 비중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별 보유 대상상품 성격에 따라 대상 금리 산출 대상 대출채권 정의 은행 조달자금 성격에 따른 일반자금·결제성자금 분류 재검토 은행 자금조달 및 운용 특징에 따른 자금흐름 가정 변동성 완화를 위한 평활화 방안 마련 - 이동평균, 장기평균, 최저값 등
② 만기별 금리커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별 금리 커브 산출 및 조정 방안 마련 - 금리 역전 및 누락 구간에 대한 조정 만기별 금리 산출 주기 및 적용 방안 마련

실 조달원가에 따른 리스크프리미엄 운영 방안

새로운 리스크프리미엄 산출방법론 적용에 따라 기존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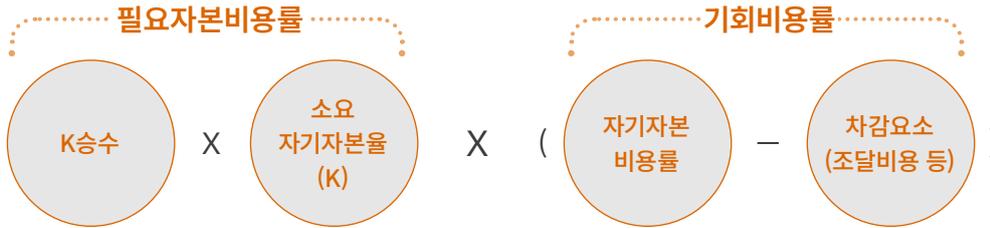
표7. 리스크프리미엄 신설에 따른 대출금리 운영 방안

① 리스크프리미엄 산출 프로세스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프리미엄 산출 주기 및 산출 프로세스 정의- 모범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산출 필요 리스크 프리미엄 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② FTP 이원화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이전가격(FTP: Fund Transfer price)를 대출 금리체계와 구분됨에 따른 이원화된 운영 방안 검토 - 영업점 BEP(Break Even Point) 산출 및 운영방안 마련

자기자본 비용산출

자기자본비용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자기자본비용 산출 시 경영계획 상의 목표치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정책 수립시에는 은행의 자기자본 보유정책, 경영계획 등과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 산출방식 재검토

자기자본 산출 구성요소별 산출가정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출방법론 정의가 필요합니다.

표8. 자기자본비용 산출 방안

구분	요소	검토내용
필요자본 비용률	K승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규제자본 적용 vs 기타 규제자본 요소 적용 범위 검토
	소요자기자본율(K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등 검토 필요 -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X		
기회비용률	자기자본비용률 (C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계획 등 목표치에 따른 합리적 산출 방법론 적용 필요자본 원천에 따른 적정 소요자기자본율 적용 방법 등
	차감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조달 가정에 따른 기회비용의 차감요소 정의 - 조달원가·무위험이자율 등

경영계획 등과 연계된 기대이익률

기대이익률은 은행의 실제 경영계획 상의 이익률 또는 과거 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은행의 기대이익률이 은행별 편차가 크고 은행의 자의적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적정 이익률 달성과 함께 대외 설득을 위한 합리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표9. 기대이익률 개선방향성

계속기업 관점 이익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익성 달성 필요 • 대출금리 구성요소 외 발생 비용 및 기회비용의 보전
기대이익 산출의 합리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경영계획과 연계된 합리적 기대이익률 산정 로직 유지 • 산출 로직에 대한 이해 가능성 및 산출근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
안정적 운영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금리체계 유지를 위해 기대이익률의 변동성 완화 - 평균, 중위값, Cap-Flow 등 적용여부

기대이익률 산출로직의 재검토 · 개선

기대이익률 산출로직은 수익성, 합리성, 안정성을 추구하되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대이익률 산출과정이 이해하기 쉽고, 어렵지 않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정의합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면·비대면 업무원가 산출

업무원가는 은행의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업무원가는 상품, 채널, 대출규모 등 차별화 요소에 따라 구분 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합리적이고 이해가능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원가 산정 로직 재검토

최근 감독기관은 비대면 여신상품의 증가로 인해 비대면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무원가 산출로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업무원가 배분 기준을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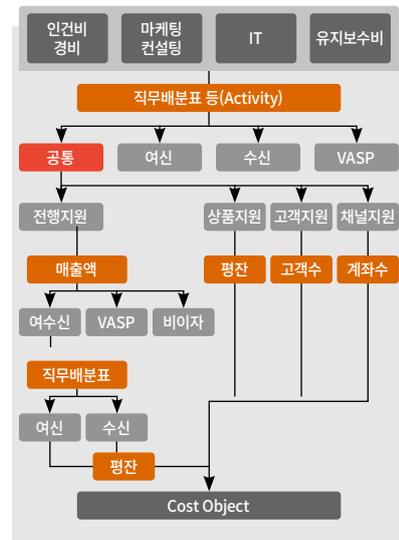
은행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요소**를 고려하여 Segment 정의 필요

대상 기간 발생원가 중 경상적, 영업(여신) 관련 원가,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후 대상 원가 정의

원가배분 대상별 Activity 정의 및 합리적 원가 배분 기준 마련



재무정보
00.01 ~ 00.12 현재 재무정보
인건비, IT원장 등 상세내역
경상적
일시적 발생비용 제외
영업관련
영업외 손익 제외
중복 여부
타 금리요소 중복 제외





감독기관 요구사항 합리적 적용

금융기관 금리체계 개선 규제대응을 위해서는 감독기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되, 은행의 자금조달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개별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원가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로직을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각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은행의 실제 조달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익성

합리적인 원가 산출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익성 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규제기관은 모범기준에 정의된 항목 외에는 대출금리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이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 정책은 은행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경영계획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대출금리 정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문서화, 내부통제 운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정확하게 문서화 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금리 구성요소의 원가산출 로직과 근거는 정확하게 문서화 하여 감독기관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정의한 대출금리 체계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고객, 규제기관이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s

삼일회계법인 금융본부

김영환 Partner

yung-hwan.kim@pwc.com

02-3781-0164

장주호 Director

ju-ho.chang@pwc.com

02-3781-3434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1A-RP-006

©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